



율법사의 질문

(누가복음 10:25~29)



율법사라는 것은 당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모세의 율법을 행하려고 힘도 많이 쓰는 사람이겠죠. 본문은 그러한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당할 때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대답에는 항상 지혜가 필요하고, 질문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율법사의 질문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며 영생 얻는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변은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결국은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죠.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는 바울이 전도 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16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으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 누가복음 10:25~29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저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덕
과 공로와 의로 인해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가 바로 내
구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빈손 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
서 그의 공로와 의로 구원 받습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신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구원의 길과 영생을 얻는 길은 믿으라고 했는
데, 예수님께서서는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믿
는다는 것은 먼저 자각이 있어야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
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고프 줄 알아
야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입술로만
말하는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속에서부터 죄인이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 전
혀 없다' 라는 절실한 깨달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따끔하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 인줄 아십니까? 힘을 다
해서 행해보려고 했던 루터야말로 순교의 삶을 세워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

양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루터는 자기부인과 거룩을 위해 제일 힘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일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까지 들어가며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됐습니다. 사람이 행해 보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보는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줄 깨닫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율법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인요, 스스로 의롭다’ 하며 율법을 이론으로만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행하는 데 비례 되서 깨달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행할수록 더 깨닫습니다. 그 생명을 깨닫는 것은 순종해야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험하기 위한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벌써 그 사람의 무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두움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멀어집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말합니다. ‘진리는 내려가면서 배운다.’ 무디는 체험으로써 이 말을 말한 것입니다. 무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려고 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려가면서 배운다.

그러나 본문에서 율법사는 유대사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는 얼마나 아나 보자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28절에는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합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곳곳이 내세울려고 하는 사람이

예요. 도대체 인생에 어찌 옳은 게 있습니까? 옳은 줄로 알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지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거룩되게 살아서 성결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선생도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혹은 너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먼저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마음의 자세는 그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는 받을 마음이죠.

하지만 율법사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른 것입니다. 그대신 예수님께서서는 행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써 행해 봐야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써 행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결단코 행위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완전케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임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힘과 믿음을 주어서 행하도록 하고, 또 행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대신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행위의 원칙을 세워 나가는 것은, 결단코 행위의 원칙을 다 팽개치고 이제는 믿음의 새법을 세운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고 또 행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씩어도 이렇게 썩나’, ‘옳게 행한다고 했더니 거기도 잘못이 있구나’ 하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행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성결을 본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리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가야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 몸에서 구원하랴’의 고백이 계속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행해져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영원토록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새로운 삶 일수 있구나 예수님이 붙들어 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행함과 믿음은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일치란 말입니다. 물과 나무,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의 관계와 같이 행위가 흔들리면 믿음이 살지를 못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고로 믿음과 행위는 호흡과 같습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한 회개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누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회개와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율법을 강조할까요? 아직 죄의식도 없고 죄로 인해 고민이 없는 아이를 앞에 놓고 ‘너는 예수님의 피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 죄를 사함받는다’ 라고 하면 아이가 납득을 할까요?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고민도 없으니 무엇을 이해하겠습니까? 이와같이 예수님은 교만한 율법사에게 ‘율법을 행해라. 구원 문에 들어가는 제 일보라’ 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에서 율법과 관련된 행위를 쪼개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행하는 것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공로가 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행위의 빛은 영원토록 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좀 더 정비하기 위해 난 죄인이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분명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행하라’는 말을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네 눈이 만약 범죄하였으면 네 눈을 뽑아버려라’는 어떻게 해석 할겁니까? 해석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허나 예수님의 말씀 같이 역시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해석을 바로하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란 질문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굉장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해야 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순결하게 가지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모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순결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한세상 살아 갈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다해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육신의 힘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뜻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 말씀은 전부를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말입

니다. 가정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무엇이든 다 가질수 있지만은, 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를 나만 못하게 생각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만큼 사랑하라는 이 원리에서 우리가 살아 가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나보다도 높이고 남을 남만큼 높여 가는 일이 되어진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희생함으로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남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 줍니다. 또 남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육간에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높여주고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돌아 볼 때에는 아무리 희생한다 해도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나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때 결국 내게 살이 붙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볼 때 내가 윤택해 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못했습

니다. 하루에 열두 번도 넘게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녹아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어라’ 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못한 입장에서 책임감을 덜 가져서는 안됩니다. 책임감조차 시들하면 안됩니다.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나 뭐 나만 못했나?’ 하면서 책임감을 감소시키고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지옥에 밖에는 갈 데가 없는 처지야’ 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살아가야 합니다. 이진 높은 윤리라고 하기보다는 정당한 윤리입니다. 인간은 의뢰히 행해야 됩니다. 행했어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바로 취급하면, 이 윤리를 바로 취급하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 고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 라고 합니다. 이 율법사는 아직도 그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일날 공과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